

한국교회원로목회자 구국기도회 개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회개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임원순 목사)은 지난 11월 15일(화) 오전10시 30분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한국교회 원로목회자 구국기도회'를 갖고 난국에 처한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로목사들은 기독교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깊이 회개했다. 이사장 임원순 목사는 원로목회자 구국기도회 개최의미를 설명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는 우리들의 남은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임원순 목사는 "기도의 울림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지금 그 기도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으며 나라는 찢어져 신음소리를 내고 밑층은 빛을 잃어버린 안개 속에 헤매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기도회는 준비위원장 김진욱 목사의 사회로 원로목회자 명예회장 이상모 목사의 선언문 낭독, 원로목사회 대표회장 문세광 목사의 대표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도회에는 원로목회자를 대표해 최복규 목사가 '주여! 이 땅을 기억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현역목회자를 대표해 이태희 목사가



주여! 이 땅을 긍휼로 잊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평신도를 대표해 정근모 장로가 주여! 이 땅을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파했다.

또한 특별기도시간에는 원로목회자를 대표해 김동권 목사가, 현역 목회자를 대표해 한은수 감독이, 평신도를 대표해 김경래 장로가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기도회는 또 한기총 중경회장 지덕 목사의 격려사에 이어 한교연 명예회장 김윤기 목사가 나라를 위해 통성기도를 인도하고 한기총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의 인사말, 애국

가 제창 후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신진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은 지난해, 한국교회가 회개의 눈물을 흘린 '2015 회조리 기도대성회'를 개최한 바도 있다.

준비위원장 김진욱 목사는 "헛된 습관과 세속적인 것에 집착한 나머지 오늘의 이 혼란스런 대한민국이란 결과를 낳았다"라며 "우리 모두는 누구의 잘못을 꼬집기 보다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사회와 한국교회’ 주제 포럼 개최

기독교학술원, 한국교회 ‘김영란법 효율적 집행’ 관한 주제로



기독교학술원위원장 김영한 박사는 제6회 포럼을 '정의로운 사회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11일(금) 오후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영한 박사 사회로 개최에 배후 '김영란법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주제 발제와 논평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한 위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사회는 일명 '김영란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부패 공화국'의 부명을 벗고 '청정 공화국'이 되어야 한다"며 "교회부터 도덕적 성품 변화로 모범을 보이고, 외적·경제적·저별 위주의 네거티브 시스템보다 내적·자율적·공적 동기 유발에 의한 한신적 공적 수행방향의 긍정적

시스템으로 대개혁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장한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생명나무순교교회)는 '김영란법의 효율적 집행, 정의로운 사회와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장 박사는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사이버이단과 연루된 '최소신 게이트'를 보면서 분노와 배신감, 허탈감으로 국민적 공황에 빠져 있다"며 "이러한 국가위기 앞에서 어느 때보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위에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박사는 "정의로운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야 할 때"라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생애 기간 몸소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인간은 죄항성을 갖고 있기에, 김영란법 같은 강제력 없이는 부패의 시습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법이 없다면, 그리고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락하고 만다"고 했다.

카지노 도박 박성배 목사 징역 4년 6개월 법정구속

순총학원 관련 30여 억 원 횡령 '유죄'

교단 재산을 빼돌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배 목사가 징역 4년 6개월에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아)는 11월 22일(화) 박 목사가 학교법인 순총학원의 교비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재단법인 대출금과 관련해 30여 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는 교단 재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문제여서 횡령배임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시금고쳐편 이용한 것, 주일 말고는 도박장에서 살다시피 한 기록이 확인됐고, 재판 중에도 도박장 출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목회자로서의 성결성을 저버린 채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보내준 신뢰를 배신했

고,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총회와 순총학원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진술을 바꾸면서 사실을 감추려한 정황도 보이고 지금까지도 많은 거짓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수 차례 벌금형 전과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기하성 관련 3년, 순총학원 관련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판결 이후 도주의 위험이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한일루터교회연합 평화예배 드려

평화선언문, 일본의 전쟁과오 사과 담겨 있어

기독교한국루터회(총회장 김철환 목사)는 일본 루터교단과 함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일루터교회연합 평화예배'를 지난 11월 8일 제주 명성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드렸다.

이번 행사는 한일 양국 루터교가 선교협력으로 함께하고 나아가 양국과 아시아의 평화를 연대하는 화합의 자리로, 특히 한일루

터교회가 공동으로 평화선언문을 낭독해 의미를 배가시켰다.

이 평화선언문에는 일본의 우경화와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영토분쟁 등이 언급되었으며 이에 대한 일본교회의 사죄고백도 포함됐다.

평화선언문에는 "일본 교회는 일본 국가가 저지른 전쟁의 과오를 진지하게 회개한다. 일본 국가와 일본 교회가 한국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전쟁 과오에 가담해 온 것을 회개하며 이웃의 이름을 치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다음 세대에 도 진실을 알리며 아시아의 이웃과 진실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3의 연합단체 출범할 것으로 보여

한기총-한교연 연추위 공식 발족하고 통합 추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회연합추진위원회(이하 연추위)가 지난 11월 16일(수) 공식 발족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교연은 이번 연추위의 행보에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 상태로는 연추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통합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교연은 이 문제에 따른 가지회견을 17일에 열고, 교단장회와가 이미 통합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를 짜놓고, 한교연을 둘러리로 세우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연추위 9인 위원회 중 한교연에서 4인을 파송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미 교단장회와가 임의로 한교연 파송위원을 선정해 넣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끼리 논의해 선출해야 할 위원장과 임원 조직도 이미 다 조각이 되어 있었



으며, 아무런 논의 없이 이 모든 게 발표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16일 연추위가 발표한 위원 명단은 추진 위원장에 이종승 목사(예장대신백석 총회장), 공동추진위원장으로 김선규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 চে영남 목사(예장통합 직전총회장), 여성삼 목사(기성 총회장), 전용재 감

독(기감 직전 감독회장), 유관재 목사(기침 총회장) 등이 선출됐다.

여기에 한교연 중경대표회장인 김요셉 목사(예장 대신)와 한영훈 목사(예장 한영) 2인과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엄정목 목사(개혁신 총회장)를 각각 추

국제독립교회 회원 총회…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사)국제독립교회연합회, 정관개정 및 제2회 회원 필수교육도 가져

(사)국제독립교회연합회(회장 이병원, 이하 국독연)는 지난 11월 14일 구리 두레교회에서 20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개정했다.

1부 예배는 임우성 사무총장의 사회로 샘물선교회와 양경진 목사의 성경봉독,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의 대표기도, 박조준 목사의 설교, 김동성 목사(서기, 초월교회)의 헌금기도, 장재호 목사의 헌금연주, 양재현 목사(영

월 하나로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켈 3:16-19 말씀을 본문, '이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박조준 목사는 "목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따라서 성이 무너지느냐 지켜지느냐는 파수꾼에게 달려 있다"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시대를 지킬 수 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된 이 시대를 깨워야 하는 사명이 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2부 총회에서는 주영수 변호사(갑사)의 진행 아래 회계보고를 비롯한 각종 업무를 보고 받은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3부는 제2회 필수교육 순서로 진행됐다. 부서기인 정기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해 전승만 변호사가 '김영란법'을, 유창렬 교수(신대학원대학교)가 '목회코칭'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특히 유 교수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 부흥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주셨다"며 "외부에서 찾지 말라. 자원은 지금 주신 성도"라고 강조했다.

'일의 신학'을 주제로 강의를 한 김윤희 교수(FWIA 대표)는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 성도가 일과 교회봉사, 예배 사이에서 죄책감을 느낀다면 당신은 어떻게 조인하겠는가"라고 물으며 "이는 성도의 현실적인 문제다. 세상일과 하나님의 일을 따로 구분할 수 없다.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교회연합 총무협의회 제6회 정기총회

신임회장에 이재형 목사 등 임원 선출

(사)한국교회연합 총무협의회는 지난 11월 17일(목) 오후 5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만나홀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이재형 목사(예장개혁 총무)를 선출하는 등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재해하기 사업계획을 심의처리했다.

한교연 총무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현재 교계 현안인 한국교회연합을 위한 추진에 적극 대처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종교인과 세분제와 동성애 대책, 이슬람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 각 교단의 실무자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처리하기로 했다.

새로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재형 목사(예장 개혁) △부회장



김진호 목사(기성), 박혁 목사(예장 합신), 박만진 목사(예장 개혁총로), 김성실 목사(예장 성경), 이영한 장로(영단원) △서기 유은 목사(예장 합동선목) △부서기 광명선 목사(예장 호헌)△회독서기 최철호 목사(예장

합동총선목) △부회독서기 유상훈 목사(그교회) △회계 김종인 목사(예장진리) △부회계 김교현 목사(예장보수) △감사 홍관혁 목사(예장합동보수), 윤경원(기독시민운동중합협)

2016 자랑스런 전문인선교 大賞 시상식

가나안농군학교 김범일 교장, 전문인선교 대상

세계CEO전문인선교회(WCPM, 대표 박형렬 목사)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회연합회(한개협)가 주최하는 '2016 자랑스런 전문인선교 대상(大賞) 시상식'이 지난 11월 12일(토) 여전도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전문인선교 대상은 한동대학교 이

사장이며 가나안농군학교(원주) 김범일 교장, 대안클리닉 이병욱 원장,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승률 이사장, 대신대학교 직전 총장 전재규 박사, 한국장로신문사 직전시장 진이권 회장이 수상했다.

한개협 소속 WCPM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전문직업을 가지고 백만 전문인선교사 시대를 열자!'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초교파적 CEO(직능별) 전문인선교단체다.

WCPM은 2010년부터 '자랑스런 전문인선교 대賞'을 제정, 매년 기독교 CEO·장장인·실업인·의료인·교육인·과학기술인(IT)·법률인·방송연예인·문화예술인 중 다섯 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WCPM은 "한국개신교회협의회(KWMA)도 2030년까지 100만 자비량(전문인)선교사를 목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교회에 직능별 전문인선교의 중요성과를 모델로 제시하여 전문인선교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이로써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문화평화와 선교평화에 더욱 충성하여 다시 한 번 한국교회의 제2부흥과 세계선교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져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김장수 목사)는 지난 8일(목) 오전 11시 순복음분향교회(담임 강인덕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 교단과 지방회,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1부 예배는 총무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탁원진 목사의 대표기도와 증경회장 박행남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루어졌다.

박 목사는 사 50:1~2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이 없구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2부 월례회에서는 회장 김장수 목사의 진



행으로 총무 이경진 목사의 총무 및 재무 보고, 회계 오세준 목사의 회계 보고를 처리했

으며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모든 순서를 마쳤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최동순 목사)는 지난 11월 21일(월) 오전 11시 증평순복음교회(담임 김윤용 목사)에서 11월 월례회 갖고 지방회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조재호 목사(장대교회)

의 사회로 시작되어 육백천 목사(소생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김윤용 목사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행 12:1-10 말씀을 본문으로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베드로가 핍박으로 투옥되었지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 천사가 옥문을 열어 주었다"면서 "목회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절망이 소망이 되고 문제가 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우리 지방회 산하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했다. 이어 김희경 목사(만나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와, 이문근 목사(이목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의 진행으로 서기 김경준 목사의 회원점명 및 서기록 낭독과 신병설 목사의 재무보고, 민병훈 목사의 회계 보고, 김용 목사의 총무보고와 기타 안건을 처리한 다음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 본 교단과 지방회 산하 모든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 마쳤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장소를 옮겨 증평순복음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오찬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교제 시간을 가짐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참된 제자가 되어 범사에 강건하기를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차흥식 목사)는 지난 11월 21일(월) 아산에 있는 한사랑교회(담임 안홍규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총무 김영권 목사의 사회, 재무 오수경 목사의 기도 그리고 지방회장 차흥식 목사의 설교와 증경총회장 진동웅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차 목사는 요산 1:2-4 말씀을 본문으로 '잘되시기를 간구 합니다'라는 설교 말씀을 통해 '잘 되는 목사는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드리는 사람이며, 핍박을 받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증거 하는 사람이니



충서지방회 회원들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사람들이 되자"고 말씀을 전하였다. 이어 한사랑교회에서 제공한 풍성한 오

찬대접을 받은 후에 12월 지방회 행사에 대하여 논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월례회 일정을 마쳤다.

목회자들의 올바른 설교를 위한 성경강해

경기중부지방회

경기중부지방회(회장 김동문 목사)는 지난 11월 21일(월) 오전 10시 팽택시 소재 예수능력교회(담임 김연태 목사)에서 11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은 특별히 지방회장 김동문 목사의 인도로 요한복음 강해를 실시하였다.

목회자들의 올바른 성경해석을 통한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양육을 목적으로 한 세미나에서 김동문 목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많은 목회자들이 복의 개념을 이 세상의 물질적 형상으로만 잘못 이해하고 가르친 관계로 교회의 건강성이 많이 훼손되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도리의 세상의 조종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지적하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침체되어 가는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



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요한복음 속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전 지방회원이 모두 참석하였고 추수감사절 총동원 전도 행사를 한 예수능력교회 성도도 함께했다.

이후 회원들은 예수능력교회 김연태 목사가 마련한 푸짐한 오찬을 함께 하며 시장 상 잠시 연가하였던 일본 선교 여행을 내년 3월 중에 다녀오기로 결의하고 현지 선교사와의 연결 등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월례회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목순복음교회 사택 및 식당 준공 감사예배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최동순 목사·삼산순복음교회)는 지난 11월 20일(주일) 오후 4시 이목순복음교회(담임 이문근 목사) 사택 및 식당 준공 감사예배를 드렸다.

새로 건축된 식당에서 성도들과 지방회 원들과 인근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초대 교회의 성도들같이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기도하고 교제하며 지역사회 복음화의 파수꾼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준공감사예배는 신호식 목사(이목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부회장 오병용 목사(아래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 서기 김경준 목사(후영순복음교회)의 성경 봉독, 이목순복음교회 사본 중장단의 특송,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최 목사는 출 16:1-5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의 만나'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 것처럼 79년 전 이곳에 이목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셨다면



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 지역 복음화에 초석이 될 것을 당부하고 축복했다.

이목순복음교회 담임 이문근 목사는 사택 및 식당 건축의 공로자인 김종완 안수집사와 유규상 집사에게 감사패를 각각 수여하고, 지방회 재무 신병설 목사(주사랑순복음교회)의 봉헌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축하와 친교 시간에는 지방회 증경회장 윤경현 목사(보은순복음교회)와 증경회장 이동수 목사(한희순복음교회)는 축사를 통해 먼저 사택과 식당을 건축하여 입당하게

됨을 축하하며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목사님과 장로님과 여러 성도님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는다며 입당을 축하했다.

신호식 목사(이목순복음교회)는 인사를 통해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 돌리고 바쁜 가운데 참석해 준 지방회장과 여러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증경회장 김윤용 목사(증평순복음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이목순복음교회에서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한 오찬을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 다짐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홍현철 목사)는 지난 11월 22일(화) 오전 11시 순복음반송교회(담임 한순남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기도했다.

1부 예배는 지방회 서기 박영욱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천미교회)의 대표기도, 박영욱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의 성경 봉독, 증경회장 박영호 목사(오일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마 1:10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 제가 주의 종임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순종하는 주의 종의 모습으로 살 것을 강조했다. 이어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



교회)의 헌금기도와 증경회장 고영권 목사(순복음한세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지방회 임원회의 및 토의 시간을 통해 각종 회무를 처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월례회 행사를 마쳤다.

2016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하반기 계절학기 개설 안내

- 일 시 : 2016년 12월 5일(월) ~ 9일(금) 4박 5일
- 장 소 : 본 대학원 301호 강의실
- 강 사 : 본 대학원 원장 임종달 목사 외 4명
- 등록 마감 : 2016년 12월 4일(주일) 오후 5시
- 기 타 : 재학생은 무료, 미 취득 학점이 있을 시 학점 대체함
- 문 의 : 02)2677-0692(본 대학원 행정실)
- 선교 헌금 : 1,000,000원(숙식은 각자 해결해야함)
- 선교 헌금 입금계좌 : 농협 302-0928-2133-91 임종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 생명의 말씀 ■



이 건 호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 부총회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참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첫째로, 참된 기독교와 구원의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크게 둘로 나누어 “참된 기독교와 비 간전한 기독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참된 기독교를 살펴보면 “성경을 중시하고 기초로 하는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는 계시의존주의이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해준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야 하며 성경 안에 나타난 성삼위 하나님만이 참 기독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신비를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교파활동을 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 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딤후 3:16-17)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약과 본분에 대하여 정

● WCC 반대운동 3주년 한국교회 개혁축구 결의대회 설교문

참된 기독교와 구원의 길

(요 14:6)

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한 기독교 신조와 사도신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어만 참된 기독교가 됩니다.

반면에 비 간전한 기독교를 살펴보면 비 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인본주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되어 교회 안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으며,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 집단들과 일치될 도모하는 배교와 배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근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악 곧 동성애를 옹호, 비호, 선전하는 만행이 기독교 안에 지행되고 있음은 타락의 끝자락에 놓인 기독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의 잘못된 행위를 알고 고도 침묵하는 다수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와 성읍을 무너뜨리거나 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갈 때에 파수꾼들은 요란스럽게 경고의 나팔을 불아야 하며 개들은 동네가 떠나가도록 시끄럽게 짖는 것이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일각이 크게 잘못되었는데도 책망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경우를 짓지 못하는 게로 비유했습니다.

종교개혁주의의 WCC총회를 개종하여도 주 최자들을 경계함이 없고 오히려 그들과 동류가 되어 있으며, 칼빈의 개혁주의 후예라는 예장통합교단은 적그리스도라고 규정되어 있는 로마제국의 종교 가톨릭과 일치로서 기독교에 대한 배교와 배도를 일으켜도 잠잠한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종교개혁 500년 역사와 130년 한국교회 역사를 마감시켜 버리는 반역을 저질러도 조종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목은 땅은 기경해야 합니다. 짓지 못하는 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고 영생복락을 얻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죄와 사망에 놓인 인류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주님의 나라로, 기독교회를 굳게 함께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WCC(세계교회협의회)는 반기독교적인 가톨릭의 실체인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WCC가 한국교회에 상륙하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의하여 1959년도에 처음으로 한국교회에 들어왔습니다. WCC로 인하여 반대하는 측이 합동총회를, 찬성하는 측이 통합총회를 설립하게 되므로 대한예수교장로교회가 두 교파로 분열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3년 10월 29일 “사탄의 회”인 “제10차 WCC 부산총회”를 일부의 통합총회를 위시하여 NCCCK 및 한교연 소속 일부교단들이 부산에 유치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이를 반대하고 나선 한기총과 한교연은 영원히 합할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22일은 종교개혁 500년 역사의 깃발을 부르던, 한국교회의 치욕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NC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WCC의 실체인 가톨릭과 ‘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를 창립하였기 때문입니다.

WCC의 실체는 로마종교인 가톨릭입니다. WCC는 1) 종교다원주의와 2) 개종 전도금지 와 3) 종교혼합주의와 4) 동성애결혼허용과 5) 용공주의 용납과 6) 종교통합을 주장하는 비기독교 단체가 기독교를 표방하고 이 땅에 파괴하는 것을 죄시해서 안 됩니다.

로마종교인 가톨릭은 성경 공동번역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번역함으로써 법문적으로 전락시켰으며, 성경 대신에 교리서를 만들어 그것에 의하여 행동하며 또한 연옥설을 주장하는가하면 교황을 하나님 대신으로 숭배하며,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나 평생 처녀로 살다가 부활 승천했다고 비 성경적인 것을 주장하면서 마리아를 숭배하며, 성당 안에 각종 조각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종교집단이며, 성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이며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하여 각종 핍박을 일삼았으며 기독교를 인습시대로 몰아기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이 기독교회를 표방하여 천주교는 ‘큰 집’, 개신교는 ‘작은 집’으로 표현하는 명칭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것이며, ‘개신교’라는 말을 ‘기독교’로 ‘성서’라는 말을 ‘성경’으로 사용하기를 만천하에 공포하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참된 기독교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한국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WCC는 NCCCK와 함께 가톨릭의 종교통합을 위한 ‘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517년 중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사 그들의 만행에 종지부를 찍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NCCCK와 함께 종교개혁 500년 역사의 깃발을 부르려고 ‘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를 창립하여 또다시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살하려는 계책을 세웠습니다.

직제협이란 직무나 직위에 관한 제도를 협의한다는 말로서 가톨릭에서는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등의 직제가 있고 기독교에서는 교단총회장, 감독, 노회장, 지방회장, 담임

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직제가 있습니다. 이를 협의한다는 것은 모든 직제를 가톨릭화 하여 목사가 신부로 불리게 되고 각 나라 총회장을 추기경이라 부르게 되고 이 모든 세계 기독교의 교단총회장 위에 교황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하는 사전 작업이 아닐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협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이러한 협잡에 결코 놀아나면 안 됩니다.

신앙직제협의회에는 한국 정교회, 한국 천주교, NCCCK 회원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루터회가 ‘신앙과 직제협의회’ 창립에 함께한 교단들로서 합류해 있습니다.

끝으로 보수적 신앙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순세력들을 바로 알리기 위하여 개미군단과 같이 모인 이 자리가 중세기 종교개혁운동 이후 마땅히 일어나야 할 성령의 대역사인 WCC 반대운동 3주년, 서울역 광장대회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고백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복음인 것이 온 천하에 전파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명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참된 기독교와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단 12:3)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절했다 칭찬 받는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이기는 큰 벌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상분의 일과 여러 물 속에 떨어지니 이 벌의 이름은 썩이라 물들의 삼 분의 일이 썩이 되매 그 물들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예 8:10-11)고 하신 말씀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동 정

국가조찬기도회 채익순 신임 회장



사단법인 대한민 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지난 17일 이사회 총회를 열고, 제9대 신임 회장으로 대의 그룹 회장 채익순 장로를 선출했다. 채 장로는 오는 8일 취임식을 갖고 내년 3월에 열리는 제49회 국가조찬기도회를 총괄한다.

한교연, 정서영 목사 단독 임후보



한국 교회연합(대표회장 조임태 목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영훈 목사)는 제6대 대표회장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가군에 예상 합동개혁 총회의 추천을 받은 정서영 목사가 단독 임후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교연 제6회 총회는 오는 12월 8일(목)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리게 된다.

성결대, 주한중국어문화원과 협약



성결대학교(총장 윤동철)가 지난 11월 18일, 주한중국어문화원 史瑞琳(스루이린)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한중국어문화원과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문화 예술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고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여 한중 상호 교류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방송인 박미선, 희망나눔



국 제 구 호 개 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을 통해 아프리카 우간다 최빈곤 지역 카라모자에 방 문한 개그우먼 박미선이 내전과 약탈전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왔다. 박미선은 “이곳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책임과 긍휼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즈음하여

국민들은 평화와 안정과 법치주의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세 번째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우리 대통령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것이 끝까지 지켜지지 못하므로 대통령의 부끄러움이 국민의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한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 담화의 내용은 자신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나,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관리를 잘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였고,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정치 입정을 국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다. 또 모든 일정을 법의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고 하였다. 이는 사실상 국회의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핵정국’을 용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

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궤도를 가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을 것을 부탁하였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며, 대통령의 담화를 듣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였다.

국민은 평화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5차례의 대규모 반대 집회가 있었으나, 수많은 참가자들은 폭력 대신 평화의 모습이었

으며,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이런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정환란을 틈타 아전인수(御田引水)격으로 정권 탈취에만 혈안이 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은 안정과 화합과 법치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우리 국민은 이런과 같은 국가적 어려움 앞

에서든 지혜를 모아, 희망의 로드맵을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데, 슬기와 힘을 모아, 국가적 불행이 거듭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일된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화합과 안정을 위한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7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6. 8. 31(수)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6. 9. 8(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6. 9. 22(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6. 8. 31(수)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조남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민규
총 무 목사 최형택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국정교과서 정치적 상황에 휘돌리지 말아야 ...

정부가 지난 해 11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후,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국정 역사교과서가 힘을 잃게 될 상황이 되었다. 소위 '최순실 게이트'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지난해만 하여도,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이 42.8%로 나타나, 국민들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 어떤 조사에서는 19.9%로 낮아졌다고 한다.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 동안 김정교과서의 역사 예곡은 국민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본다든지(대한민국 수립),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 일색이라든지(외교를 통한 독립 노력 등 긍정적 부분도 상당히 있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일변도(功過가 분명히 있음)는 문제가 되었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나 기업발전을 정경유적으로 본다든지(산업화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기여와 역할도 일정 부분 있었음), 6·25전쟁 발발의 책임을 남 북 모두에게 있다고 한다든지(이는 명백히 김일성에 의한 기습 남침 전쟁임), 북한 정권의 선전용 문구를 사용하는(북한은 3대 세습을 통해 개인 우상화가 분명함) 것은 '역사예곡'이라는 비

난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중·고교 국가 교과서에 대하여 국정교과서로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뜻밖의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만나 그 동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역사는 지난날의 의미 있는 사실들(중요한 일을 기록한 것인데, 기록되어진 것이 역사이며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 즉 구전되는 것은 전설로 남을 뿐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기록되어야 하며, 올바르게 기록되어야 한다. 상식이지만,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로 되어졌던 사실이 다르게 전해지기도 한다. 동일한 사실인데 지랑스러운 역사가 되기도 하고, 부끄러운 역사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의 일들만이 아니며 현실과 미래에도 무관할 수 없다. 즉 역사는 과거와 현실과 미래를 이어준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과거를 통해서 현실을 보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며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게 한다. '역사란 미래를 잉태하고 있고 과거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말이 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 내

용으로 국가 교육을 받게 된다면 역사교육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므로 이것 때문에 그동안 많은 우려와 문제점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리고 국정교과서에 대한 의견이나 여론이 나쁘다고 하여 백년대계(百年大計)가 되고, 바른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국가교과서 제작이나 배포를 포기하겠다는 분위기는 찬성할 수 없다. 교육부는 잠시 형성되고 있는 반대 여론이나 정치적 상황에 휘돌리지 말고 바르고 정확한 역사적 내용들을 집필한 국가교과서를 널리 배포함으로써, 적어도 바른 교육의 디딤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역사예곡과 편향은 범죄 행위에 다르지 않다. 이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의혹은 역사교육을 통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 이해나 교육이 아니라 이념이나 사상을 전파하고 학습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역사 교육이 목표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에 일선학교에서 국정교과서가 사용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용과 질로서 기존의 왜곡된 교과서가 왜 사용되어지면 안 되는가를 증명해 주기 바란다. 한국교회언론회

“서울나들이로 웃을 일이 생겼어요”

경산가정폭력상담소 청소년 15명, 스마일투어 실시

“아~ 캠프다!” “어~ TV에서만 봤던 국회네~” “인중 사진 찍어야지.” 태어나서 경북 경산에서만 자랐던 청소년이 전쟁기념관과 청와대, 국회, 광화문, 창계천 등 서울의 랜드마크를 투어하며 하는 말이다. 경산가정폭력상담소는 11월 18일 경산지역에서 선발된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서울의 유명한 곳을 돌아보는 ‘스마일투어’를 실시했다. ‘스마일투어’는 경산아름다운교회(담임 이주용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경산가정폭력상담소에서 2015년부터 진행해온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부모이혼이나 가정폭력 등과 같은 사유로 웃음을 잃고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하루만이라도 웃음을 찾아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다. 이번 참가자는 경산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초·중·고등학교생) 가운데 종교에 상관없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청소년이정무료 급식을 이용하거나,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선정됐다. 올해는 한국기독교선교사(총재 한은수 감독, 상임대표 최희정 김진옥 목사)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총재

정근모 장로, 대표회장 이주태 장로)로부터 투어버스와 식사, 선물을 후원받았다. 또 LG그룹 본사 견학과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았다. 투어코스는 애국심 고취를 위해 전쟁기념관을 둘러보고, 평소 TV로만 볼 수 있는 국회의사당, 광화문, 창계천, 청와대를 돌아 봤다. 스마일투어를 기획한 이주용牧사는 “교회 후원으로 생전처음 KTX를 타보는 경험-생애 첫 서울 나들이-여행 경험으로 청소년들이 꿈을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라며 “향후에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웃음을 찾아 줄 수 있는 ‘스마일투어’를 모색하고, 여건이 되면 경산아름다운교회가 건축한 필리핀교회로의 스마일 투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선교사(총재 한은수 감독은 스마일투어를 위해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꿈은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학업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라며 시련은 누구라도 겪고, 그 시련은 견딜 수 있는 일이라 여기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밀알첼로앙상블, 21명 발달장애인 ‘아름다운 하모니’

제4회 정기연주회 성황리에 개최

1년 동안 연주회를 위해 구슬땀 흘려 연습해온 밀알복지재단의 발달장애인 첼로앙상블 ‘날개’의 제4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11월 24일(목) 세리미팔레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1명의 날개단원들은 멘델스존 피아노 트리오(Mendelssohn - Piano Trio No. 1 In D Minor Op. 49 1st.), 파헬렐 캐논(Pachelbel's Canon (Arr. A.Ephross)) 협연 등의 아름다운 연주를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조아라 아나운서의 사회와 오세란 음악감독의 지휘로 진행된 이번 연주회는 특별히 피아니스트 우영은, 바이올리니스트 김홍연, 앙상블 콘 쿼오레(Ensemble Con Cuore) 등의 게스트가 참여해 첼로와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하모니로 감동을 더했다. 이번 연주회를 본 한 관객은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연주자들과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함께 화음을 맞추며 첼로 연주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밀알첼로앙상블 날개는 수호천사 동양생명보험,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후원으로 2012년 창단해 올해로 4번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달 제9회 전국장애학생 음악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학금 마련 위한 후원음악회,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주최로

소외되어 있는 수감자 자녀 지원 기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 이경림 상임대표)은 지난 11월 22일(화) 오후 7시 30분 서울 이태원 소재 아이리버 스트라디움에서 수감자 자녀 장학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 ‘탄남’을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세움이 주최하고, 더복컴퍼니,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산나눔재단, 유진로봇, 회경주재단, 한국사회복지공제회기후원하며 오르투스

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오르투스(ORTUS)는 시작과 빛을 뜻하는 라틴어로 연주하는 음악이 오르간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 받고자 설립된 4명의 중견 오르가니스트로 구성된 최초의 오르간 앙상블 그룹이다. 또한, 세움은 2015년 3월 설립되어 부모의 수감

로 적절한 보호를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가족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전문기관이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수감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외되어 있는 0.6%의 수감자 자녀가 당당한 세상을 위한, 수감자 자녀 지원 기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무대교회 35% 공정률 속에 감사예배 드려

10월 말 기준 건축후원금 약 110억 원 모금

매년 평균 7만여 명이 진중세례를 받는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의 새 예배당이 35%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11월 17일 오전 11시 건축 현장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행사는 본당 벽체 공사를 완료하고 지붕 공사를

개시하면서 현장 노무자와 공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안전공정을 당부하며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현재 새 예배당 건축 공정률이 35% 정도로 공사가 순항 중이며, 교회당 벽체의 윤곽이 보일 정도”라며 “그간 건축 현장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건축 추진 경과를 보고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내년 중 헌당을 위해서는 교단 및 교회 약 정금과 개미군단의 정성이 모여야 한다”며, “젊은 청년들을 향한 애절한 사연과 정성은 계속 모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무대군인교회는 진중세례신자 숫자가 2014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올 상반기에만 세례인원이 4만 2,894명이었으며, 올 한해 세례인원은 총 8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혈몬산교회 부흥회 및 철야기도회

선교사 기도의 쉼터, 청소년사역 기도처

혈몬산수양관교회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교회 새성전에서 부흥회와 매주 금요일 철야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쉬어 갈 수 있도록 선교사 기도의 쉼터, 청소년 사역을 위한 기도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문제해결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을 원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담임



김남순 목사
혈몬산교회 담임

장소 및 문의

혈몬산교회(담임 김남순 목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1번길 91-16
(백곡리 산13번지) 010)2415-2062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고영권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임복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010-5614-2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최병진 목사)

예하성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금 제도, 본 교단 총회 신학, 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sunshalom@naver.com



(학장 김상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학장 오일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 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영신상조(장례전문) 100%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택일), 영정꽃,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196만원 2호 3호는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교단공과 신청

출판헌금

- ① 유체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체·유년·초등부 합본) : 5,000원
- ② 중·고등부 공과 : 2,000원
- ③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 ④ 성인구역공과 : 5,000원

특징(교회학교 공과)

-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②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③ 영어가 삽입되어 영어권에서도 사용 가능함

공과신청

- ① Fax: 031)223-1793, 02)2677-5181
- ② e-mail: hello-pastor@hanmail.net
- ③ 입금계좌: 국민은행 061701-04-179779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④ 신청마감: 2016년 12월 8일(목)까지 신청과 함께 입금된 수량만 인쇄합니다

문의

전 화: 031)233-2922, 02)2675-5181~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년 전국 여교역자국 송년예배

주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1)

♡ 모시는글

한해를 돌아보며 또 한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여교역자국 송년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두 함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송년 예배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함이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여교역자국 올림 -

| 일 시 | 2016년 12월 12일(월) 오전 11시~오후 4시 30분

| 장 소 | 온선교회(담임 탁정신 목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691-5

| 대 상 | 전국 여교역자 전원

| 주 관 | 여교역자국

| 문 의 | 국장 탁정신 010-5313-3379

차장 김효신 010-3784-3731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후원 : 총회·각 지방회



정혜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조남영 목사
가평순복음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별교회



자문 신동숙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국장 탁정신 목사
온선교회

조 직

임원단

전국지부장

차장	기획실장	행정부장	설외부장	경조부장	예배부장	홍보부장	행사부장	복지부장	사회부장	선교부장	봉사부장
손복음전교회 김효신 목사	일산별교회 조영만 목사	추계교회 김진애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	회복순복음교회 김순자 목사	순복음전교회 김비율 목사	순복음전교회 한순남 목사	예주순복음교회 최영희 목사	순복음경동교회 이경자 목사A	군열순복음교회 김종배 목사	순복음침례교회 조은주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광순 목사
서울중부지방회 지부장	서울강남지방회 지부장	서울중앙지방회 지부장	서울남서지방회 지부장	경기지방회 지부장	경기중앙지방회 지부장	경기남지방회 지부장	안산시흥지방회 지부장	경기북지방회 지부장	용인지방회 지부장	일산지방회 지부장	김포지방회 지부장
시랑과평화교회 홍현자 목사	순복음시랑교회 이현옥 목사	예수한기교회 정애스더 목사	반석교회 신은순 목사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월문산교회 김남순 목사	민음교회 이경자 목사B	통성한성교회 서석자 목사	순복음성광교회 김인희 목사	순복음평강교회 실수자 목사	임마누엘교회 이정애 목사
강원동지방회 지부장	강원서지방회 지부장	대전지방회 지부장	충북지방회 지부장	충남지방회 지부장	청주지방회 지부장	경남지방회 지부장	영남동지방회 지부장	부산지방회 지부장	광주지방회 지부장	전북지방회 지부장	전북서지방회 지부장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바울기도원 정희자 목사	대흥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대성산기도원 임연임 목사	솔로몬순복음교회 권옥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동명순복음교회 김영숙 목사	순복음문예교회 이순애 목사	순복음원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별교회 배영혜 목사	성령달교회 임성애 목사	임마누엘수영교회 심혜원 목사
전남지방회 지부장	호남지방회 지부장	은진지방회 지부장									
녹동순복음교회 백영자 목사	순복음동산교회 정복례 목사	온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탁정신 목사

도너패밀리(뇌사장기기증)와 장기기증캠페인

대학생 홍보대사 SAVE9도 함께 진행... 사랑의장기기증운동

(제)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이하 본부)는 지난 11월 19일(토)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대학교 마로니에공원에서 대학생 장기기증 홍보대사 'SAVE9' 이 도너패밀리(뇌사장기기증)인 유가족 모임과 함께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SAVE9은 국내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본부 대학생 홍보대사로서 지난 2013년,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발족했다.

도너패밀리와 SAVE9이 함께하는 장기기증 캠페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기기증이라는 아름다운 결정으로 생명을 선물한 뇌사 장기기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의 가치에 공감하고, 생명 나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쳤다.

오후 12시 30분, 9명의 SAVE9 학생들은 뇌사 장기기증 가능한 장기의 숫자인 '9'와, 생명 나눔을 뜻하는 페이스페인팅을 얼굴에 그려 넣고 대학로 일대를 행진했다. 이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도너패밀리의 사연을 담은 작품 20점이 마로니에공원에 전시됐다.

시민들은 가족을 떠나보내면서도 장기기증을 결심해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난 뇌사 장기기증인과 그 유가족들의 사연을 접하고, 생명 나눔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게됐다.



해 깨닫게됐다. 한편에서는 세이브나인 학생들과 도너패밀리가 시민들에게 장기기증 서약을 독려해 생명 나눔에 대해 홍보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뇌사장기기증인 故 임남규 군의 아버지 임원재(경기 안양·51)씨도 딸 임수연 양과 함께 참석했다. 임 씨는 지난 2009년, 뇌동정맥기형이라는 선천성 질환을 앓던 아들 남규 군을 잃었다.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이송된 아들 남규 군은 1주일 뒤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간, 신장,

각막 등 장기를 기증해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 임 씨는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우리 아이도 같이 숨을 쉬는 거라고 생각해요. 장기기증에 후회는 없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해주었다.

한편 캠페인을 앞두고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생명 나눔으로 국내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시킨 장기기증인들의 고귀한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이들이 장기기증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사렛대,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저소득 가정·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에 전달

나사렛대(총장 임승안)는 지난 11월 17일(목) 교내 학생식당에서 '2016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에게 김장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승안 총장을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과 재학생, 교직원 등 50여명은 사랑관 2층 학생식당에서 배추 500포기의 김장을 담갔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쌍용2동 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 가정과 홀몸 어르신 등 지역 소외 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임승안 총장은 "사랑과 정성을 담아 나눈 김장으로 추운 겨울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이 훈훈해졌으면 한다"며 "이웃 간의 정과 관심이 메달릴 기는 요즘, 가슴을 녹이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사렛대는 천안시 원성천 교각 벽화그리기 연탄나눔, 지역내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 멘토링 제공 등 다양한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을 벌이며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고 있다.

2017 작은 교회와 함께 하는 드림캠프

미자립교회 지원캠프로 7~8명 조별로 운영

(사)순성세계복음선교회(이사장 피종진 목사)와 (사)서울YFC(이사장 김해원 권사)가 겨울평화를 맞아 2017년 1월 9일(월)부터 11일(수) 세종 평화의 동산에서 '9th 작은 교회와 함께 하는 드림캠프' 미자립교회 지원 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캠프는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하며 캠프를 통한 은혜도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려 한다는 생각으로 미자립교회를 섬기고자 사단법인 순성세계복음선교회가 주최하고 서울YFC가 주관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가 후원하는 캠프이다.

캠프의 주제는 '천로역정'이며, 주 강사로는 최관하 목사(영훈고 국어교사), 김형운 목사(조이플교회 담임)가 은혜의 말씀을, CCM 콘서트는 박광식 선교사(색소폰)가 함께 한다.

특별히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는 청소년 지도자 훈련을 별도로 실시한다. 청소년 지도자 훈련 캠프 강사로는 안재권 장로(드림캠프 준비위원장), 김성중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왕동식 목사(서울YFC 대표)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훈련을 시킨다.

다른 청소년 캠프와는 달리 7-8명의 학생들이 한 사들과 함께 조별로 운영이 되어 청소년들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활동하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그 안에서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를 배우게 된다.



참가대상은 전국의 미자립교회 중·고등부 학생과 교사이며 신청은 미자립교회 지원 캠프임으로 교회당 학생 10명 이하, 교사 2명 이하로 한다. 참여 문의는 서울YFC(02-3675-1091)로 하면 된다.

연합장신총회 총회 회보 제20호 발간

송기호 박사의 성서신학 등 수록



대한예수교 장로회(연합장신) 총회(총회장 송기호 목사) 총회 회보 제20호가 출간됐다.

격월간지인 총회 회보는 교단 내 소식을 비롯한 소속 목회자들의 시, 설교 등 다양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어 총회발전에 길라잡이 역할을 해준다.

이번 20호에는 송기호 박사의 성서신학(내세론 연구)과 서기 최명복 목사의 설교, 총회장 송기호 목사·신학노회장 오영순 목사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총회 회보는 연합장신총회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나 교인 등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배포된다.

또한 회보에 참여시, 설교, 연구분할 수도 있으며 문의는 회보 편집부로 하면 된다.(02-2254-0391)

한국상담교육발전협, 심리상담사-인성지도교육사-가족상담사

지난 14일~19일 광은기도원서 단기집중통합 자격연수 세미나

(사)한국상담교육발전협회(이사장:허창범, 회장:김수배)가 주최한 '심리상담사-인성지도교육사-가족상담사 단기집중통합 자격연수 세미나'가 지난 11월 14일(월)부터 19일(토)까지 광은기도원 비전센터에서 열렸다.

허창범 박사의 교육심리학, 상담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의로 세미나가 시작됐으며, 한진주 박사의 도형심리, 가족상담 및 각종심리검사 실시에 대한 강의, 나혜숙 박사의 이상심리에 대한 강의와 오만목 박사의 인성지도교육론, 성격이론, 및 심리검사도구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상담사를 지망한 목회자 및 평신도들은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며, 상담사로서의 자질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의에 참석한 김삼순 박사는 "인성 심리 가족상담 교육을 통해 인간에게 배워서 고등 속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만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했으며, 김동훈 박사는 "5박6일의 시간이 나의 인생에 전환점으로 마치 보화를 얻은 것 같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전했다.

또한 홍신권 박사는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욕구 불만과 사회 불만 그리고 불안정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배워서 도구를 통해



점점해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말했다.

행사 주최측 김수배 회장은 "한국 교회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단기 연수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제2차 단기 통합자격 연수 세미나는 오는 12월 오전 10시부터 17일 정오까지 광은기도원 비전센터에서 실시되며, 세미나참석비용은 5박6일 숙박비 및 자격검정료를 포함해 98만원이며 12월 8일까지 사전 등록지는 10만원 할인 혜택이 부여 된다.

또한 목회자 및 사모, 전도사는 30만원 할인된 68만 원에 교육 받을 수 있다.

(문의: 010-8865-5522)

패키지여행 / 허니문 / 크루즈 / 골프 / 어학연수

적립식여행 시스템으로
목돈의 부담없이!!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매월 적립식 납입으로 부담없이
납입기간 내 완납 시 언제든지 출발가능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가능
고객의향에 따른 맞춤 설계시스템

☆품의 여행단 모집☆
010-2339-7601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320호
(별동 446-13)

(주)씨지투어

www.cgtour.co.kr

TEL : (02)903-4744 / FAX : (02)903-4745 / HP : 010-2339-7601

동계 베텔성서지도자강습회 개최

오는 12월 12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동계 베텔성서지도자강습회가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순천 금당남부교회 미드리마를 수양관에서 성서 세미나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열린다.

1974년부터 시작된 한국베텔성서연구원(원장 이홍렬 목사)은 초교과적으로 널리 사랑받는 세계적 성경 교육 과정인 베텔성서연구를 한국화시킨 프로그램(성서편·생활편·신앙편·구원편·예배편·지배교육편)이다.

한국베텔성서연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성서연구교과로서 구약 20과, 신약 20과 등 총 40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교재는 성도들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흐름을 구속사 관점으로 조망하도록 안내한다.

한국베텔성서연구원이 추구하는 목표는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을 위한 성서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거의 반세기에 걸쳐서 280여 회의 지도자강습회를 개최한 이유이다. 지금까지 45개 교단 1만6천여 명의 목회자가

지도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47만여 명의 성도들이 베텔 성서 프로그램을 공부한 바 있다.

▲성서편 강사진은 박일영 교수(루터대), 박영준 목사(철원감리교회), 서금석 사모(춘천중앙교회)이며, ▲지배교육편 강사진은 박상진 교수(성로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장), 김영래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장), 박미영 원장(기독교대학교 유지원 원장), 허상봉 목사(동대전성결교회)이다.

베텔성서지도자강습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16년 12월 12일(월)부터 14일(수) 순천 미드리마을(순천 금당남부교회 수양관) 성서편 ▲2017년 1월 9일(월)부터 11일(수) 서울 신명중앙교회 성서편 ▲2017년 1월 18일(수)부터 20일(금) 전주 샘물교회 지배교육편 ▲2017년 2월 13일(월)부터 15일(수) 대전 동대전성결교회 지배교육편 ▲2017년 3월 13일(월)부터 15일(수) 철원 철원감리교회 성서편

2016 제3기 CTS소식지 독자위원 모집

새로운 형식의 독자 모니터링단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지난 2기에 이어 2017년에 활동할 '제3기 CTS소식지 독자위원(이하 독자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격월로 발간되는 CTS소식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독자위원회는 각 기사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비롯한 지면 평가와 소식지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하게 된다.

홍보팀 정용혁 팀장은 "연간 20만부 이상 발행되는 CTS소식지는 귀중한 선교 도구로 크리스천에게 사랑받아 오고 있다"며 "제3기 소식지 독자 위원 활동을 통해 CTS 영상지역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2기 독자 위원으로 활약한 이승형 위원은 "CTS



소식지를 통해 아름다운 동행, 보석 같은 이야기를 언제나 들을 수 있어 굉장히 유익했다."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음성 같은 속삭임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내용들이 담길길 바란다"고 지난 독자위원 활동의 소회를 밝혔다.

독자 위원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CTS 홈페이지(www.ctstv) 및 CTS 블로그(http://blog.naver.com/ctsmange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제출하면 된다. 독자 위원은 성별, 나이별, 직업별 안배를 고려해 최종 선발되며, 선발된 독자 위원에게는 소정의 선물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및 문의 : 02-6333-1045 / prv356@ds.tv)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복음의 그물던져 영혼구해야...”

오늘날 성경은 누구나 한 권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비기독교인들 역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지혜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의 주제와 결론이 무엇인지를 물어 본다면 이는 사람이 뭘까? 오늘 난 이 성경 전체의 비밀을 몸으로 깨닫고 일생을 전도에 헌신한 박영수 목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 자신을 전하고 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창 2:9). 신약에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하신일이 허락에 앉은 백성에게 천국을 전하시는 전도자로 출발하셨다(마 4:17).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중의 결론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전도의 사명과 상급에 대해 말씀하셨다(마 5:10-12).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열두제자를 예 선택 하셨을까?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하셨을까? 마 10:1-23 말씀에 증거하고 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까?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그 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것은 복음의 그물을 내려 수많은 영혼을 건져 내었음을 마 4:18-22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 목표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눅 8:11). 예수님은 탄생부터 이름 속에 자신을 되에서 구원할 자라고(마 1:21) 전도하셨고 삶 속에서 전도하셨고(마 1:38) 십자가에서 두 강도에게 전도하셨다(눅 23:39-43). 예수님은 삶 전체를 인류에게 전도자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복음서다. 성경은 전체가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로 끝맺는다(창 2:15-17, 계 22:12).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목사, 장로, 집사는 모두 성경의 결론을 잘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다. 박영수 목사는 이 전도의 비밀을 성경에서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에 목욕탕 안에서 발견되는 몸으로 머리에 안수하여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자마다 안수하고 축복기도 하며 영접기도 시켜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온 가족의 이름까지 적고 그 주일날 교회로 온다는 약속까지 받는다. 이것은 성경의 결론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최후의 유언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기도는 전도하기 위해, 교회 출석도 전도하기 위해, 성령 충만도 전도하기 위해, 성경공부도 전도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전도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무서운 범죄 행위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겔 3:16-21 말씀에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요 전도대상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매우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마 10:32-33).

나는 오늘 이 최고로 중대한 일을 깨달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전도법을 직접 배워이 땅에서도 복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최고의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

김 철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우수졸업동문과 함께 ‘공부의 달인’ 공달캠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 선발, 무료로 실시되는 캠프

겨울방학을 맞아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원하는 많은 학부모들은 기숙학원이나 청소년 캠프의 스파르타식 집중학습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한 해 동안 자신의 성적과 공부 방법을 되돌아본 뒤 그 문제점과 함께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중등생에게는 학습의 양보다 학습방법과 습관 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글로벌선진학교는 동문과 함께하는 ‘공부의 달인 캠프’를 통해 대한민국 학생들의 일관 겨울 방학을 책임질 것을 약속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몰라 성적향상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법을 전수하고 전도에 맞는 자기관리와 집중력 향상법 등을 알려주며, 비전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계획이다.

2017년 1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일에 걸쳐 진행되는 캠프는 학습동기부여와 학습전략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노트 작성법, 교과서 이해 노트 활용

법, 비전 세우기, 맞춤 학습 목표를 세우는 방법,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달캠프는 멘토와 멘티를 지정하여 학생들이 혼자 하기 어려운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 시키고 동시에 1:1 질의응답, 일일테스트, 주간테스트 등 체계적인 피드백과 학습 교정이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신앙집회, 영어찬양 배우기, 체육훈련 등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신앙과 체력을 키워줄 계획이다. 캠프에 멘토로 참가하는 박신애 학생(국가장학생, 다트머스대학교 입학예정)은 “학창 시절 직접 터득하고 배운 나만의 공부 방법을 모두 전수 할 것”이라 말하며, “자신이 도움받았던 것처럼 후배들을 돕고 싶다.”며 캠프 참가 동기를 밝혔다.

캠프 기간 동안 공부의 달인(글로벌선진학교 동문)들은 영어, 수학의 기본개념을 튼튼히 하고, 최적화된 스케줄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습관을 올바르게 정립해 줌은 물론 학생에게 공부에 대한 동기를 심어 주고 집중력 강화 및 자신감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록 도울 계획이다.

캠프 관계자는 “겨울방학 동안 게임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학습관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학습에만 집중하면서 모든 과목의 기본개념을 다질 수 있는 공달캠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하며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가 평소 경제적 여건 때문에 개인교습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글로벌선진교육원(054)559-7091
www.gemgem.org

여배우 최정원, “우간다에서 만난 여성의 아픔과 희망”

‘월드비전-MBC창사 55주년 특집 방송’과 우간다 여성들의 아픔을 보듬다

배우 최정원이 월드비전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 굿루지역에 ‘나눔 전도사’로 다녀왔다.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 www.worldvision.or.kr)은 여배우 최정원이 오랫동안 내전을 겪은 우간다 굿루지역을 방문하여 빈곤과 사회적 냉대에 시달리는 ‘소년 병사’ 출신 우간다 여성들과 희소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간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고 밝혔다.

우간다에서 20년 동안 지속된 내전으로 국민들은 오랜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특히, 우간다 내전 당시 ‘신의 저항군’으로 불린 반군은 6만 명의 소년, 소녀들을 납치해 전쟁터로 내몰았다. 소녀



병사들은 ‘살인 병기’가 된 것에 그치지 않고 성적 학대까지 당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다.

내전이 끝난 후 소녀들은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

왔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난과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드라마 SBS ‘마녀의 성’, KBS ‘브레인’, SBS ‘별을 따다 줘’, KBS ‘소문난 칠공주’, 예능프로그램 KBS ‘용감한 가족’ 등 드라마와 예능을 넘나들며 활약해 온 연기자 최정원은 데뷔 후 홀로 나눔을 실천해왔다.

이번엔 문화방송 MBC가 창사 55주년을 맞아 기획한 대규모 기부문화 확산 프로젝트 〈MBC와 좋은 친구들〉 4부 ‘엄마의 이름으로’에서 지난한 내전으로 고통받는 우간다의 여성들을 만나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다.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대표 김옥태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히 것은 고혈압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류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 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19,000원(택배비 포함)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옥태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수가 잘 빠진 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더량구매 특별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학년도 총회신학교·목대원 졸업예배

(총회신학교 제6회, 총회목회대학원 제9회)



2016학년도 졸업식 광경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총회신학교·목대원 학사일정에 따라 2016학년도 졸업식을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
오니 함께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6년 12월 19일(월) 오후 2시
- 장 소 : 총회본부 5층 대성전
- 참석대상 : 총회신학교, 총회목회대학원 졸업 대상자
- 참 고 : 1) 졸업 대상자는 졸업식 당일 오전 9시까지 도착(예행 연습)
2) 졸업가운 수령은 졸업식 당일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도착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회신학교·목회대학원

● 주소 : 07205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 전화 : 02) 2677-0692 ● FAX : 02)2632-0691 ● 홈페이지 : www.agtc.or.kr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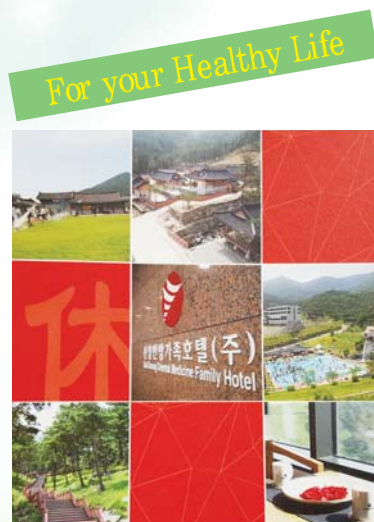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하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발제문

임석순 목사 // 한복합 중앙위원, 한국중앙교회 담임

나의 삶과 나의 감사



지난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그 감사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가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부모님의 신앙 밑에서 개인적인 체험이 없이 자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원인 모를 질병으로 인하여 세상 의사들은 모두 포기하고 죽음의 문턱에 설 수밖에 없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단계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학생 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후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 유학의 길에 올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목회는 저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통해 하나님은 저를 지금까지 자라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던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목숨을 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반강제적으로 부름을 받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벨과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아내 사 را를 누이로 속였던 일,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 좋아 보이는 땅을 양보했던 일, 그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혔을 때 구하고 돌아오던 때에 멜기세덱을 만나 전쟁에서 얻은 것의 십분의 일을 드린 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등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 한분만으로 족하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할 일은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일입니다. 신학을 하고 유학을 할 때에 제 길은 이미 목회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작은 곳이든, 시골이든 상관없이 있었고 어디에서든 부르심이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을 마무리할 즈음에 당시 교단 총회장이셨던 최복규 목사님께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 때부터 목사님은 제게 영적 부모와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난 28년간 제 사역의 길을 닦아주셨는데 환한 고속도로를 닦아 주셨습니다. 한국에 귀국하고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미국까지 데리고 가주셔서 마음을 잡을 수 있게 해주셨던 일, 개척할 때 가장 아끼시던 장로님과 권사님을 저와 합류할 수 있도록 하리시었고 그 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주시며 '임 목사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장로님 권사님은 임 목사님을 잘 도와주라'고 권

면하셨던 일, 개척한 이후 제가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조언해주셨던 일 등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중앙교회에 후임으로 와서 13년 동안 최 목사님께서서는 묵묵히 제 손을 잡으시고 곁에서 걸으시며 영적인 아버지로 스승으로 때로는 동역자로 저를 불드시고 넘어지지 않게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감사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제가 사역할 수 있고 제기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작아졌지만 한 때는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저는 잊을 수 없는 고맙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목회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게 전적으로 교회를 옮기게 하셨습니다. 세 번씩이나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합니까? 막막한 마음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한국중앙교회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과 의논을 하였고 원로 목사님도 놀라셨습니다. 당시 한국중앙교회는 담임 청빙을 앞두고 있었고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부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관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조금씩 자라가게 하심으로 미약하나마 교계와 선교 그리고 후학 양성 등을 위하여 쓰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목회를 통하여 또한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저는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을 닮은 목사로 영향을 줄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기독교한국신문 창간 4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심포지엄

기독교한국신문(발행인 유달상 장로) 창간 4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심포지엄이 지난 11월 24일 (목) 기독교회관에서 열려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을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드린 예배는 하태영 목사(삼일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갑자 목사(민족복음화여성운동본부 대표회장)의 기도, 김진호 목사(전 감동회장의 설교, 김요셉 목사(한교연 중경 대표회장), 유순임 목사(민족복음화여성운동본부 총재)의 격려사, 고시영 목사(예기총 대표회장), 원종문 목사(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 대표회장), 조성훈 목사(예정연 이사장), 이주태 장로(한국기독교언론사후원재단 대표회장)의 축사, 김금열 목사(군남반석교회)



의 축사, 발행인 유달상 장로의 인사, 신신목 목사(기독교지도자협 대표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했다.

예배 후 곧바로 이어진 포럼에서 전영호 목사(아가페교회)는 “목회자들이 물질과 세속적으로 빠져 민

족의 소망이었던 교회가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이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종교개혁 499주년 한국교회 길을 묻다’란 주제를 통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성도들만 양산하고 있다”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특히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다”면서 “성화와 행위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제에 나선 장보연 교수(기신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는 “교회와 사회복지(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 중심으로)란 주제를 통해 “교회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나서야 한다”면서 “교회가 미혼모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

대한민국 부정세력은 막아야 한다

이제는 충심으로 간구하기니와, 국민들이 먼저 차분히 정치권의 행태를 지켜봐 주어야 한다. 이만큼 분노의 시위를 표했으면 나라의 국가 안보와 경제상태가 무참히 퇴락해 가고 있는 위기 중의 위기에 놓인 국가적 명운을 생각해서라도, 오히려 차분히 법집사의 속행을 촉구 하고 법의 판결을 기다리는 선진 국민답고 민주사회의 주권자다운 모습을 의연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선진민주국민이 해야 할 행동이요자부심이 되어야 한다.

지금 소위 5차에 걸친 대통령 물아내기 군중시위가 참가인원 100만, 150만이니 하면서 기록을 깨고 있다고들 하지만 실상은 이러한 시위와 집회를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를 냉철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사회적인 주요 이슈를 발파삼아 이를 왜곡 증폭시키고, '폭력시위'를 주도한 단체들이 거의 전부다.

통진당 해산, 좌편향교과서 개혁, 정성화, 개성공단 폐쇄, 유엔의 대북 핵실험 제재 조치 적극 호응 등의 결단으로 대북 압박의 선봉장 격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게이트”로 인하여 반신불수 격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에 기름을 부으며 대한민국 좌절과 전복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국민이 연출되고 있다.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대통령의 비리에 대한 선량한 국민들의 분노와 시위 참가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익·종북 세력의 정권퇴진 운동을 방치한 국가 전복의도에 활용될 우려가 있게 된 일대 난맥상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31 독립운동정신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할 국민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난국을 틈타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이 공간을 파고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 대통령 실정(失政)은 실정대로 따지더라도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0일보 보도 인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독교인이 나서야 할 것”이며 “국가와 교회를 위해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선포하였다.

바로 지금 온 국민은 교회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대 각성하여 말과 행동과 애국·구국의 피어린 기도로 나라구하기에 나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종북·좌익세력의 농간에 선량한 국민들이 이용당해서는 안되며, 저들이 한 순간이라도 파고들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부흥사회 연수세미나-진리의 복음 전파 선봉에

교단 부흥사회는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가평순복음교회 수양관에 모여 혼란한 정국 타계와 체제상태에 있는 한국교회의 변화와 개혁, 회개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서운 추위에도 회원들은 가평 충렬사에 올라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안정되어서 안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뜨겁게 기도했으며 이를 위해 내 자신 먼저 회개하고 성령충만하여 변화될 것을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도의 현장에서는 풍광 일여있던 얼음벽이 켜 갈라지며 떨어져 내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회원들은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메시지와 전 부총회장 정부영 목사, 최정식 목사의 특강을 통해 은혜와 성령충만을 받고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더욱 크게 쓰임 받는 부흥사들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윽고 회원들은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

도하는 한편, WCC를 비롯한 종교다원주의자들과 동성애 허용을 외치는 자들이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이들의 변화와 침투방지를 위해 부흥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흥사로서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세미나를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사명감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부흥사들은 마지막 때 강력히 외쳐야 할 것은 바로 진리의 복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부흥사회 가을 산행기도회 및 연수세미나를 통해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영혼들에게 우리 교단의 확실한 영적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해 주고 또한 가장 성경적인 교단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을 고취시켜 주며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영적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부흥사로서의 열정을 회복하였고 강력한 시대적 사명감을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오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목회자 세미나 기획안

각 교단의 교세확장을 위한 세 불리기 목회자 양성은 영성과 인성, 영적진단과 처방 등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적 인격을 갖추지 못한 채 목회현장으로 내몰리며, 목회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계도 유지 못하는 난항에 이른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기성 지도자들의 교회내 각종 금융 비리와 절제되지 못한 사생활문제는 교회 문제를 떠나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개신교의 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새롭게 출발하는 목회 초년생들과 이제 겨우 어려운 고비를 넘긴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땅 끝까지 복음전파라는 목회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이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기성 목회자들의 자성과 회개, 그리고 뚜렷한 목회관 없이 성공목회라는 세상과 야합한 신기루를 염원하며 목적 없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목회자들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참 목회자상과 신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함으로 그들의 목회에 힘과 용기를 주고자 장교 끝에 다메섹순복음교회에서 목양신문사와 공동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한다.

참 목회자 상과 목회자들의 새로운 이정표

1.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스
마 13:35 천국은 창세 전에 사람들에게 감춰져있어, 천국이 드러나도록 비유를 잘 해석해야 천국이 발견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은 감춰진 채로 남겨 되고, 깨닫는 자에게는 천국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감춰진 만나,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3.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속히 될 일을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곧 감춰진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은 공간이동이 아니라 육적차원에서 영적차원의 것으로 영의 눈이 열려야 이를 깨닫고 주님이사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4.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양모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5.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의 지혜, 능력, 실력, 마음됨됨이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6. 독생자의 영광의 핵심은 우리 인격과 능력과 실력이 완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7. 성경전체요약 강의: 창세기-계시록까지



개강 2016년 12월 8일(목)

- 시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공저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선 시작한다.
- 강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010-6202-631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년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제4회 실행위원회

일시 2017년 1월 5일(목) 오전 11시(시무예배 및 신년하례)
(12시 점심식사, 13시 실행위원 회의)

장소 총회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02)2675-5181~3

참석 실행위원(정책위원, 총회임원, 지방회장), 각 위원장, 각 국장, 증경지방회장

※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12월 22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조남영
총무 목사 최형택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홈페이지: www.agpgs.or.kr

2017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년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4학기 (2년)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자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2016년 12월 5일(월) ~ 2017년 2월 10일(금)
- ② 원서교부처: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www.agpgs.or.kr)
- ③ 원서접수: 2017년 2월 6일(월) ~ 2017년 2월 17일(금)
- ④ 접수방법: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s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형료: 50,000원
- ②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9:30분 ~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

- 원서접수: 2017년 2월 6일(월)~2017년 2월 17일(금)
-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www.agtc.or.kr

2017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 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4년제 대학졸업자: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건강진단서(HIV포함)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가족관계증명서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⑨ 담임목사 추천서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2016년 12월 5일(월) ~ 2017년 2월 10일(금)
- ② 원서접수: 2017년 2월 6일(월) ~ 2017년 2월 17일(금)
- ③ 면접시험: 2017년 2월 20일(월) 오후 1시
- ④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

- 원서접수: 2017년 2월 6일(월)~2017년 2월 17일(금)
-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